

韓國語 漢字 形態素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1)*

- 2字語 構成 要素의 形態素 지위를 중심으로 -

朱 埏 涓

(嶺南大 國語教育科 教授)

要約 및 抄錄

本稿의 목적은 韓國어 漢字 形態素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는 것이다. 漢字語 形態素 分析의 범위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本稿에 서는 먼저 國어 形態素의 개념을 점검한 뒤, 이를 토대로 2字語에 참여 하는 원사류 한자들을 形態素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本稿는 國어 漢字語의 構成 要素에 대하여, 그 동안 形態素 分析에 이견이 없었던 차사류(3字語 構成 要素) 뿐 아니라 원사류(2字語 構成 要素)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形態素 分析을 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전문 어휘 체계의 형성 원리와 생산성에 대한 이해와 설명에 유리할 뿐 아니라 漢字語 構成 要素가 보이는 다양한 양상을 포착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교육적 측면에서, 國語 漢字語에 참여하는 漢字 形態素는 고유어 形態素와 마찬가지로 그 의미, 분포, 기능이 기술 및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漢字 形態素 식별 및 分析의 성과는 國어 漢字 形態素 사전 제작이나 교육용 漢字 形態素 목록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 核心語: 漢字語, 漢字 形態素, 形態素 分析, 漢字語 教育, 漢字 教育

I. 序論

本稿의 궁극적 목적은 韓國語 漢字 形態素(한자에 기반한 國어 형태소)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漢字 形態素의 개념을

* 이 연구는 2016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정립하는 데 문제가 되는 지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한국어 漢字語에 참여하는 한자들의 분포/의미/기능적 속성은 一律的이지 않으며, 漢字 形態素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이론적 쟁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기서는 먼저 국어 形態素의 개념을 점검한 뒤, 이를 토대로 2字語에 참여하는 원사류 한자들을 形態素로 인정할 수 있는가¹⁾를 논의할 것이다.

形態素는 중등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서부터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질 만큼, 대표적인 문법 용어이지만, 한 문장만 分析해 보아도 반박의 여지가 없는 形態素 分析의 결과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에게 아래 (1)의 문장을 形態素 分析하면 몇 개의 形態素로 分析된다고 답변할까?

(1) 식물성 색소는 몸에 이롭다

(2) ㄱ. (8개) 식물/성/ 색소/는/ 몸/에/ 이롭/다/.

ㄴ. (11개) 식/물/성/ 색/소/는/ 몸/에/ 이/롭/다/.

답안들 중 두 개를 뽑아 살펴보면 (2)와 같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식물성’, ‘색소’, ‘이롭다’ 부분으로 이는 결국 漢字語에 참여하는 漢字 하나하나를 形態素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 문제는 거의 모든 문장에 대해 形態素 分析을 할 때마다 발생하게 된다. 국어 단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漢字語를 전혀 쓰지 않고서는 한 문장도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漢字語에 참여하는 한자들에 대한 문법적 자격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서는 한 문장도 논란의 여지없이 形態素 分析을 하기 어렵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문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漢字語에 참여하는 漢字 하나하나에 대한 形態素 인정과 관련된 이론적 쟁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이어지는 II장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III장과 IV장에서는 ‘形態

1) 이는 해결되어야 할 쟁점들 중 한 가지일 뿐이며 漢字 形態素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더 풍부한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素'의 개념을 점검하고 '식물'이나 '색소'와 같은 2字語에 참여하는 한자가 形態素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한 뒤, V장에서 마무리할 것이다.

II. 漢字 形態素 개념에 대한 기존 논의와 쟁점

1. 漢字 形態素 개념의 浮游

현재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한자가 일정한 음, 기호, 의미를 갖추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1음절의 漢字 1자, 1자가 形態素의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한자가 가지는 각각의 字形, 字音, 字意에 의해 漢字 1자가 표상하는 음절은 일정한 형식과 의미를 갖춘 形態素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학교 문법과, 기존 한국 漢字語 연구들에서도 漢字語 構成 要素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든 形態素 자격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 대해 느슨한 합의에 이르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漢字語와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 간혹 '形態素'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漢字 形態素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를 본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한자 형태소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는 논의도 여전히 존재한다.

漢字 形態素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은 대체로 2字語인 漢字語를 복합어로 볼 것인가 단일어로 볼 것인가에 대해 단일어로 보는 쪽을 선택한 논의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영섭(1987: 14-15)에서는 '인간'이란 말은 한문 체계에서는 두 요소로 이루어진 복합어이지만 국어 체계에서는 복합어의 성질은 상실되는 것으로 보았다. '인간'에서 '인'과 '간'이 독립적인 낱말로 거의 쓰이지 않거나 전혀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용한(1998: 14-18)에서도 漢字語의 유형 중에서 '학교, 선생, 신망, 신뢰, 소설, 의사'와 같은 단어들에 대하여 현대 언중들이 '소설, 신망'과 같은 단어를 복합어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어 문법 틀로 分析한다면 '소설'이라는 구성 전체가 단일어로 쓰이

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노명희(2014: 160)에서는 形態素와 별개로 ‘기능소’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漢字語가 고유어의 문법 체계에 따라 공식적으로 문법적 구성에 참여하는 단위”라고 정의하면서 ‘인간’, ‘학교’는 하나의 기능소라고 하였다. 이는 박영섭(1987), 김용한(1998)의 처리와 통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形態素 分析의 차원과 기능소 설정의 차원은 별개의 것임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 (3) ‘학교, 인간’이 ‘학교, 학생, 학문 / 인간, 인류, 인생’ 등과의 관계 속에서 각각 形態素로 分析되는 요소이므로 자립성이 없더라도 복합어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어의 문법 체계 내에서는 ‘학교, 소설, 인간’ 등이 한 단위로 행동하여 形態素 分析과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의 기능소로 설정하는 것이다. (노명희 2014: 164-165)

漢字語의 構成 要素에 대한 본격적 논의 중, ‘形態素’라는 용어를 논의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이익섭(1969), 김창섭(2001, 2013), 안소진(2011), 주지연(2015) 등을 들 수 있다.²⁾ 김창섭(2001: 180)에서는 “일반적으로 漢字 1자가 국어에서는 形態素의 자격을 가질 뿐 단어가 되지 못한다”고 언급함으로써, 漢字語를 구성하는 요소를 形態素로 파악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어와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漢字 1자가 단어 자격을 가지지는 못한다는 점에 초점이 있는 진술로, 앞부분, 즉 ‘形態素의 자격’에 대한 본격적 증명은 생략되어 있다는 점에서 漢字語의 構成 要素의 자격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김창섭(2013)에서도 ‘漢字 形態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김창섭(2001)과 변함없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창섭(2001, 2013)은 國語 漢字 形

2) 漢字語 관련 논의들 중 많은 수가 漢字語 접사를 주로 다루고 있다. 漢字語의 접사는 ‘접사’라는 지위를 준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形態素의 자격이 부여되므로 이러한 논의들에서 漢字語 접사만을 대상으로 形態素 용어를 사용한 경우는 주목하지 않았다. 本稿에서 주목한 것은 2字語에 참여하는 요소들을 포함하여, 漢字 形態素라는 용어를 전면적으로 漢字語 分析에 도입하는 입장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態素를 전면 인정하는 논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안소진(2011), 주지연(2015)에서도 漢字語의 構成 要素에 대해 ‘形態素’라는 용어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³⁾ 그러나 이들 논의에서도 漢字 形態素 개념을 본격적으로 검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가 이어지는 절에서 논의할 바와 같이, 漢字 形態素 개념의 정립과 관련해서는 결정적 지지 근거와 함께 만만치 않은 반대 근거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점검과 증명을 거친 뒤에야 우리가 온전히 漢字 形態素 개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漢字語에 참여하는 모든 漢字 하나하나를 예외 없이 形態素로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논의⁴⁾도 있는데 이상복(2012)이 대표적이다. 이 상복(2012)에서는 인명이나 지명과 같은 漢字語 고유명사도 分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漢字語 形態素 分析 정도 중 거의 최고 단계까지를 허용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김영철’은 ‘김’, ‘영’, ‘철’로, ‘충청도’는 ‘충’, ‘청’, ‘도’로 形態素 分析될 수 있다는 것으로 모든 漢字語 지명, 인명, 상호명 등의 고유명사에 사용된 漢字 하나 하나는 形態素로 分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복(2012: 29-30)에서는 그 근거로 제시된 몇 가지를 요약, 정리하여 옮기면 다음과 같다.

- 3) 최형용(2015)은 形態論 전반을 다룬 저서로 漢字語에 집중한 논의는 아니지만, 본문 33 페이지에서 “농사는 ‘농’과 ‘사’ 두개의 形態素로 分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토론’은 ‘이론(理論)’, ‘토의(討議)’와의 계열 관계를 통해 ‘토’와 ‘론’의 두 개의 形態素를 확인할 수 있다. ‘소설가’는 우선 ‘소설책’과의 계열 관계를 통해 ‘소설’과 ‘가’로 나눌 수 있고 다시 ‘소설’은 ‘연설(演說)’, ‘소시(小詩)’와의 계열 관계를 통해 ‘소’와 ‘설’로 나눌 수 있다. 즉 ‘소설가’는 ‘소’, ‘설’, ‘가’의 세 개의 形態素로 이루어진 단어이다.”라고 언급하면서 계열 관계에 기반하여 漢字 形態素를 추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本稿는 기본적으로 이에 공감하며, 이러한 관점의 타당성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 4) 1960년대까지는 漢字語를 이루는 漢字 하나하나에 대하여 形態素 인정의 수준을 넘어서 단어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상당수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김석득(1965: 19)에서는 “한자는 한자 한자가 낱말로 취급 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이익섭(1969: 838-839)에서는 “漢字語의 漢字 하나하나가 늘 단어(내지 形態素)를 대표하고 있다는 통념도 이를 지나치게 중국어 문법의 입장에서 파악하려 한 데서 온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류의 오류는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 듯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논의들에서는 漢字語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단어’로 규정하는 논의가 많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그것들에 形態素 자격도 부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다수라는 점에서 漢字語의 構成 要素의 지위에 대한 논의의 흐름이 양 극단을 오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ㄱ. 보통명사와 고유명사의 차별 문제: 보통 명사와 고유명사의 구별은 그 지시 대상의 범위에 따른 것이고 形態素 分析 가능성 여부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보통명사가 形態素 分析이 가능하다면 고유명사도 形態素 分析을 할 수 있다. 고유명사를 分析하면 그 언어 형태로 나타내려는 뜻이 깨지므로 分析하지 않는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고유명사 뿐 아니라 어떤 언어 형태(단어, 구, 문장...)라도 分析하면 그 언어 형태로 나타내려는 뜻이 깨진다. 그러므로 分析했을 때 본래의 의미가 상실된다는 것이 고유명사 形態素 分析이 불가능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ㄴ. 漢字 이름의 경우 집안 웃어른의 이름을 소개할 때 “김 X자 X자 쓰십니까”라고 한다거나, 본인의 이름을 소개할 때, “XX철, XX수입니다”라고 한다거나, 두 자로 된 漢字 人名을 줄여 외자로 부르기도 하는 것(영철이에게 “철아”라고 부르는 등)은 漢字語 인명의 形態素 分析을 지지한다.
- ㄷ. 고유어 지명과 漢字語 지명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예: 대실: 죽곡(竹谷), 안골: 내동(內洞), 못골: 지곡(池谷)) 고유어 지명의 漢字 地名으로의 개칭이 고유어 지명의 形態素 分析을 토대로 그 뜻에 대응되는 漢字 形態素로 바꾼 것임을 뜻한다. 이러한 현상은 漢字 形態素에 대한 인식 없이는 불가능하다

고유명사에 사용된 한자들에 形態素 지위를 주는 다소 급진적인 화두에 대한 결론을 당장 내리는 것은 잠시 미뤄두고서라도,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항목은 形態素 分析 기준과 관련하여 음미할 부분이 있으며, 기존의 ‘유의 미성’에 의한 形態素 정의의 모호성이 상당히 중요한 언어 단위들에게 온당한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한다.

漢字語를 구성하는 形態素의 지위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이익섭(1969)이다. 이익섭(1969)은 상당히 이른 시기의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漢字語의 構成 要素와 관련된 논의에 큰 수정 없이 인용되고 수용되어 왔는데, 漢字語의 構成 要素 중 形態素의 자격을 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설명이 매우 설득력이 높다는 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하다. 本稿 역시 이익섭(1969)의 기본적 입장-漢字語의 構成 要素를 기본적으로 形態素 단위로 파악하여 고유어와 동일한 체계 내에서 설명하고자 하는-에는 동의하나, 形態素 分析 대상이 되는 漢字語와 그렇지 않은 漢字語에 대한 몇 사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III장에서 상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漢字語를 구성하는 構成 要素의 形態素 지위에 대한 기존 논의의 언급들을 추가로 나열하는 것을 대신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학교 문법 관계자들의 고뇌가 드러난 흥미로운 내용을 인용하기로 한다. 최형용(2016: 78)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5)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5년에 성균관 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발행된 『문법』은 제1차 고등학교 단일 교과서이다. 그런데 이 책은 1983년 강신항 밖에 6명이 집필한 『학교문법 체계 통일을 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언론 기관과 전국의 국어학 전공 학자 및 고등학교 교사들의 공개 검토를 받기 위한 심의본(1984)를 거쳐 제작된 것이다. 漢字語의 形態素 分析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심의본(1984)에서는 ‘동화책’이라는 예문이 나오고 이 때 ‘동화’를 形態素 ‘동’과 ‘화’로 分析하였지만 1985년 『문법』은 이 ‘동화책’을 ‘이야기책’으로 바꾸어 의존성을 가지는 한자의 形態素 分析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교 문법이 國語 漢字語에 참여하는 한자들에 대하여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사실이 의도치 않게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漢字語를 形態素 分析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함으로써 한자에 명시적으로 形態素의 자격을 줄 수도, 주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임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심의본에서 인정되었던 漢字 形態素의 존재가 정식 교과서에서는 무효화 된 것일까? 漢字語의 構成 要素에 대하여 形態素 자격을 주는 것⁵⁾은 漢字語를 고유어 分析 체계의 연장선상에 두고 통합적

5) 漢字語를 形態素 단위로 分析하는 작업이 漢字語가 構成 要素가 가지는 특수성을 반드시 간과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형용(2016: 81-82)에서 “한국어의

으로 다루는 기초 단계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어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漢字語에 참여하는 한자들이 보이는 특수성이 고유어 설명 체계와 화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전혀 별도의 체계를 세워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漢字 形態素 개념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漢字 形態素 개념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고유어나 다른 외래어들과의 연속선상에서 漢字語를 설명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타당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本稿는 국어 漢字語의 構成 要素에 대하여, 그 동안 形態素 分析에 이견이 없었던 차사류(3字語 構成 要素) 뿐 아니라 원사류(2字語 構成 要素)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形態素 分析을 할 것을 주장할 것이다.

2. 漢字 形態素 개념 정립과 관련된 쟁점들

한국 漢字語를 形態素 단위로 分析하는 근거와, 分析을 주저하게 하는 이유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먼저 한국어 漢字語에 대한 形態素 分析의 결정적 지지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 ㄱ. 漢字語에 사용된 음절마다 대응하는 한자가 있고, 그것은 각각 제 고유 의 뜻과 음을 가지고 있다.
- ㄴ. 漢字語에 사용된 많은 한자들이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를 만족시킨다.

우선 (6ㄱ)은 한 음절이 한 形態素로 대응될 가능성은 고유어와 다른 외래어에는 적용되지 않고 漢字語에만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특수한 성질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漢字 形態素의 성립에 漢字 표기 가능성이 필수적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 즉, 어떠한 음절이 漢字 形態素임을 보증하는 것은 ‘한자’로의 표기 ‘가능성’이다. 즉, 1음절의 한국어 음, 변별적 의미, 대응되

漢字語 形態論은 고유어 形態論과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데 漢字語 形態論의 특수성은 한국어 形態論의 특수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음미할 만하다.

는 1개의 漢字표기 가능성이 한국어 漢字 形態素 성립의 기본적인 요건인 셈이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반드시 한자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대문’에서 ‘대’와 ‘문’이 반드시 한자로 표기되어 있어야 漢字 形態素로서의 기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⁶⁾ 그렇다면 다시 남는 것은 1음절과 1의미의 체계적 연관성인데, 1음절이 1形態素로 인정되는 것이 고유어나 외래어에서는 오히려 회피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가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 漢字語에 참여하는 한자의 경우, 形態素의 성립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인 소리와 의미의 사상이 명확하다는 점도 간과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로, (6-)은 우리는 많은 漢字語들 사이의 관계를 다음의 (7)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것이다.

(7)

학(學)	원(院)
학교(學校)	병원(病院)
학생(學生)	기원(棋院)
학풍(學風)	법원(法院)

‘학원’, ‘학교’, ‘학생’, ‘학풍’ 사이에 존재하는 ‘학(學)’의 의미와, ‘병원’, ‘기원’, ‘법원’ 사이에 존재하는 ‘원(院)’의 의미를 계열적으로 파악할 수 있

6)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漢字語의 構成 要素를 ‘漢字 形態素’에 대한 연구이지 ‘한자’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漢字語의 사용, 분석, 생성은 특정한 의미와 소리를 가지는 단위(즉, 形態素)에 대한 인종의 인식에 기반한 것이지, 문자로서의 漢字 자체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안소진(2011: 35-53)에서는 실험을 통해 漢字 지식은 화자가 漢字語를 인식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추가적인 정보이며 자음(字音)-의미의 관계가 더 기본이 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찍이 송기중(1992)에서 漢字語와 고유어의 판별에 음절 정보가 구분 기제로 작동함을 언급한 것과 관련지어 볼 때 한자의 構成 要素의 운용이 漢字 자체보다 形態素로서 소리와 의미의 대응에 기반하고 있을 가능성을 높게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漢字語 연구는 한자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漢字 形態素(한자에 기반한 국어 형태소)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는 점에서 볼 때 ‘학(學)’과 ‘원(院)’을 形態素로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이제부터는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漢字語에 대한 形態素 分析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漢字語 形態素 分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유현경(2013)과 최형용(2016)의 언급을 참조할 수 있다.

유현경(2013)에서는 漢字語는 각각의 음절이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고 있어 각각의 음절을 하나의 形態素로 分析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 ‘화’, ‘안’, ‘경’, ‘독’, ‘서’, ‘평’, ‘화’가 우리말에서 단어로 쓰이지 않고 어근으로만 사용되어 分析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고, 漢字語에 참여한 각 음절이 어느 정도 공통된 의미를 지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漢字語를 形態素로 分析하는 것을 주저”(유현경 2013: 135-136) 하게 된다고 하였다.

최형용(2016)에서는 ‘별(別)’을 예로 들어 그 의미와 분포가 매우 다양하고, 고유어 체계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전용(轉用) 현상을 보여준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漢字語를 形態素로 分析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漢字語가 보이는 특수성에만 기반하여 고유어와 구별되는 漢字語만의 별도 체계를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 漢字語 形態素 分析 가능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암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漢字語 形態素 分析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⁷⁾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8) ㄱ. 漢字語 중 특히 2字語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形態素 자격 인정 문제
- ㄴ. 하나의 한자가 극심한 의미와 분포의 다양성을 보이는 문제

먼저 (8 ㄱ)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漢字語를 구성하는 요소를 2字語³

7) 실제 形態素 分析 과정에서는 이 밖에 셀 수 없는 쟁점들이 등장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고유어 形態素 分析과 비교할 때 특히 漢字語 形態素 分析과 관련하여 形態素 分析 자체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힐만한 것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字語론⁸⁾에 따라 2字語 構成 要素(원사)와 3字語 構成 要素(차사)로 나누었을 때, 形態素 分析에 있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2字語 構成 要素인 ‘원사류’이다. 2字語 構成 要素는 김창섭(2013)과 노명희(2014)에서 모두 고유어 문법이 아니라 한문 문법을 따르는 대상으로 논의되었다. 또, 현대 한국어 화자들은 2음절 漢字語를 分析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되었으며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예들이 상당수 보고되어 왔다. 김창섭(2001: 183-4)에서도 화자가 2음절 漢字語를 分析하여 인식하지 않아 그 문법적 의미가 인식되지 않는 경우로, ‘피격(被擊)하다, 피습(被襲)하다’가 새로운 타동사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예를 들었다. ‘체포되다: 체포하다= 피습되다: X X=피습하다’의 형성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화자가 ‘피습되다’의 피동 의미를 ‘되다’가 전담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피동”이라는 ‘피’의 문법 의미를 불투명하게 인식함으로써 ‘피습하다’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노명희(2014)에서도 ‘학제(學際)-간(間), 국제(國際)-간(間)’에서도 ‘제’가 “사이”의 뜻을 지니는데도 ‘간(間)’이라는 漢字語를 중복하여 쓴다. ‘학제, 국제’의 ‘제’는 기능 단위의 자격을 지니지 못해 “사이”라는 의미가 쉽게 인식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국어 화자에게 개별적인 기능 단위로 인식되는 ‘간(間)’을 중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8ㄴ)과 관련하여 다음 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한자들이 보이는 분포 범위는 한국어 단어에 참여하는 한자가 가질 수 있는 지위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 (9) ㄱ. 郵(우편, 우체-통), 貯(저장, 저금)
 ㄴ. 寧(강녕, 안녕), 央(중앙, 진양)
 ㄷ. 菊(국화, 수국), 禽(금수, 가금)

8) 김창섭(2001)의 “2字語3字語 문법”은 漢字語 형성에는 이른바 2字語가 기본이 되고 그 앞이나 뒤에 다시 1자가 결합하여 3字語가 이루어진다는 관찰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김창섭(2013)에서는 2字語 참여 요소를 ‘원사’로, 3字語에 참여하는 접사와 유사한 요소를 ‘차사’로 명명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本稿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원사’와 ‘차사’는 이에 준한 것이다. 노명희(2014)의 ‘기능소’는 ‘차사’와 그 범위가 상당 부분 겹치는데 필요한 맥락에서는 ‘차사’와 ‘기능소’를 함께 사용할 것이다.

- ㄹ. 再(재혼, 재결합), 好(호인, 호시절)
 ㄱ. 院(병원, 요양원), 師(교사, 요리사)
 ㄴ. 食(식생활, 식초, 채식, 유동식), 乳(유제품, 유당, 우유, 산양유)
 ㄷ. 光(광, 광공해, 광각, 섬광, 자연광), 車(차, 차멀미, 차도, 배차, 견인차)

(9ㄱ), (9ㄴ), (9ㄷ)과 같이 2字語에만 참여하는 요소는 김창섭(2013)에서는 원사, 노명희(2014)에서는 비기능소로 처리하여 왔다. 노명희(2014)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한국어에서 고유어의 문법에 따라 운용되는 요소로 보기 어렵고, 이 漢字 하나하나가 국어사전에 등재될 필요가 없으며, 사전에 등재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마치 고유어의 접사와 같은 방식으로 3字語에 참여하는 일이 없고, 2字語에만 출현한다는 점은 이 漢字 形態素 부류가 가지는 고립적인 운용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9ㄴ), (9ㄱ) 과 같이 3字語에도 결합하고 2字語에도 결합하는 요소들은 고유어 접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김창섭(2013), 노명희(2014)에서는 이들이 고유어 문법 체계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총 4가지 분포를 보이는 (9ㄴ)과 같은 예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존에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제시되어 왔다. 첫째는 다른 분포를 보이는 대상에 다른 자격을 주는 것이다. ‘유제품’의 ‘유’와 ‘산양유’의 ‘유’를 구별하는 것은 물론, 우유의 ‘유’와 ‘산양유’의 ‘유’를 각각 2字語의 構成要素와 3字語의 構成要素로 나누어 별개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는 같은 의미를 가진 대상에 같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우유’의 ‘유’나 ‘산양유’의 ‘유’ 뿐 아니라 ‘유제품’이나 ‘유당’의 ‘유’까지 모두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漢字하나를 하나의 의미소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9ㄷ)은 (9ㄴ)이나 (9ㄱ)의 예들이 漢字 形態素의 접사적 성격을 보이면서 분포하는 것과 달리, 1자어로서의 자립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1자어나 2字語의 앞, 뒤에 자유롭게 분포하여 마치 합성어의 어근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漢字 形態素들 중 가장 그 분포가 자유로운 부류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漢字語에 참여하는 漢字 形態素 分析和 기술과 관련된 문제들은 단순하지 않다. 本稿에서는 그 중, (8ㄱ)에 대해서 논의

한 뒤, (8ㄴ)에 대한 것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추후 별도의 지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形態素 分析和 관련된 국어 漢字 形態素의 개념을 정립하고 범위를 대략적으로라도 정하기 위해서는 위 항목 각각에 대한 추가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본 논의는 漢字 形態素 개념의 정립을 위한 시도의 일환일 뿐이다.

III. 形態素 개념 재확인과 2字語의 構成 要素

우리는 앞서 국어 漢字語 중, 2字語에 참여하는 요소(이하 ‘원사류’)를 形態素로 볼 때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 논할 것이다.

- (10) ㄱ. 분포와 구조에 기반한 形態素 식별에 의해 形態素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漢字語에 대한 分析的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 ㄴ. 원사류의 속성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어 2字語 형성에 참여하는 많은 수의 원사류는 국어 어휘 체계 안에서 계열 관계를 만족시키며, 이때 이들은 形態素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1. 形態素 식별 기준의 재확인

形態素는 ‘최소의 유의미한 단위(smallest meaningful unit)’로 정의된다. 우리가 ‘유의미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알고 있는/사용하고 있는 뜻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혹은 합의하지 않고, 다양한 부류의 화자가 보유한 ‘의미를 가진 개체’의 변이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향의 논의는 심리언어학적/사회언어학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존재하는 단어와 그 構成 要素의 총체를 자료로 삼아, 특정 단어의 構成 要素가 결합하는 상대 요소와 가지는 관계나 다른

단어들의 構成 要素와 보이는 공통적/차별적 관계에 기반하여 ‘유의미성’을 추론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존재하는 단어와 그 構成 要素의 총체를 인지하는 이상적인 언어 사용자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이론 언어학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체계화된 지식 정보는 교육적으로 높은 이용 가치를 가질 수 있다.⁹⁾ 후자의 입장에 의거한다면, 우리는 ‘유의미성’을 ‘언어 사용자의 직관’에 의거하여 판별해서는 안 되며, 모국어와 같이 익숙한 언어에 대한 分析이라고 할지라도 그 언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단어 체계와 그 단어들의 構成 要素 간의 관계에 기초하여 유의미성을 추론해 내야 할 것이다.

즉, 形態論의 정의에 사용되는 ‘유의미성’이라는 개념에서 ‘의미’는 ‘미리 보기에 의한 의미’와 ‘후추출된 의미’로 나눌 수 있고, 形態素가 가지는 ‘유의미성’은 ‘후추출된 의미’에 의한 것일 때 形態素가 分析 단위로서 의의를 가진다. 미리보기에 의한 의미는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의미다. 미리보기에 의한 의미에 기대어 形態素를 分析할 경우, 화자가 “의미를 안다”고 생각하는 단위들을 分析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골목대장’의 경우, 특정 화자가 ‘골목’과 ‘대장’의 의미를 미리 알고 있을 경우 ‘골목’을 形態素라고 分析해 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골’과 ‘목’을 다시 分析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특정 화자가 해당 언어 단위에 대해 미리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 ‘인식되는 단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언어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일정한 함의를 가질 수 있지만, 해당 언어 체계 총체에 대한 分析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대상을 추출해 내는 데는 더 객관적인 기준이 적합할 수 있다. 또 사람마다/대상 언어가 무엇인가에 따라/ ‘미리보기’할 수 있는 능력에 ‘변이’의 수준을

9) 이처럼 形態素 分析의 기준이 관점에 따라 재해석될 수 있다는 관점은 이선웅·오규환(2016)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이선웅·오규환(2016: 221)에서는 “形態素 식별은 심리어휘부(mental lexicon)를 전제하는지 이론어휘부(theoretical lexicon)를 전제하는지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심리어휘부는 잘 알려져 있듯이 토박이 화자의 머릿속에 실재하는 것이고 이론어휘부는 문법학자가 특정 문법 이론에 따라 최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선웅(2012: 29-32)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론어휘부에서는 공형태소 개념을 인정할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공형태가 공형태소의 실현형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리어휘부를 염두에 두는 논의들에서는 공형태소나 영형태소가 심리어휘부에 등재되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화자의 머릿속에 의미는 없고 형태만 있는 단위 혹은 형태는 없고 의미만 있는 단위가 실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넘어서는 ‘차이’¹⁰⁾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미리보기에 의한 의미’는 形態素 分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또한 언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언어 단위에 대한 인간의 인식에 기반한 언어 능력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식의 양상에 대한 통찰 역시 결국은 인간이 생산해 낸 언어 자료를 分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후추출된 의미’는, 특정 언어 체계 내에서 한 언어 단위가 가지는 통합 관계와 계열 관계에 기반하여 그것의 특정 의미 기능이 다른 구성에서 재연될 수 있는가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¹¹⁾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의미’는 통합 관계와 계열 관계¹²⁾의 확인 후 추출된 것이다. 즉 形態素를 ‘최소의 유의미한 단위’라는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유의미성’이 기준이 되어 식별된 단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단위들과의 관계에 기반하여 결과적으로 추출된 의미를 가지는 단위이기 때문이다.

이상에 기반하여 ‘形態素’의 정의와 관련한 本稿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1) ㄱ. 本稿의 목적은 국어 漢字語에 참여하는 漢字 形態素의 개념과 범위를 파악하는 것으로, 本稿의 관심은 개인 혹은 계층별 漢字 지식의 차이에 있지 않고, 국어에 사용되는 漢字語 구성 총체에 있다. 따라서 本稿의 形態素 分析은 특히 국어 漢字語를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하는 데 타당하고 유리한 기준으로 선별된 것들에 기반할 것이다.
- ㄴ. 本稿는 形態素의 정의에 사용된 ‘유의미성’은 특정 혹은 일반 화자의 직관에 의해 포착된 것이 아니라 해당 언어에 존재하는 언어 단위 총체를 자료로 삼았을 때, 특정 단어의 構成 要素가 결합하는 상대 요소와

10) 특히 漢字語의 경우에는 그 構成 要素에 대한 식별 능력이 개인/계층/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11) 이와 관련해서는 形態素 判별과 단어 구조 分析에 계열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채현식(2012)와 최형용(2015)을 참조할 수 있다.

12) 공형태소 논의와 관련하여 形態論의 식별 기준으로서 통합 관계와 계열 관계 외에 음운론적 현현방식의 기준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하지만 本稿의 경우 漢字語 形態素 判별과 관련된 시론적 논의로 이 부분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특별히 다시 다루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이선웅(2012)에 잘 정리되어 있다.

가지는 관계나 다른 단어들의 構成 要素와 보이는 공통적/차별적 관계에 기반하여 추출된 것으로 파악한다.

2. 形態素 식별 과정

앞에서 우리는 언어 단위의 유의미성은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構成 要素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추출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 때 해당 언어 단위의 결합 대상이 가지는 자격을 고려함으로써 더 입체적인 식별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Nida(1949)의 여섯 번째 원리를 참조할 수 있다. Nida(1949)¹³⁾에서는 미지의 언어들에 대한 分析에도 적용될 수 있는, 形態素 식별의 객관적 과정을 정립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한 여섯 가지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 중 <원리 6>은 形態素를 그것이 결합한 단위와의 관계에 의하여 판별하는 원리에 해당하는데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¹⁴⁾

13) Nida(1949)는 구조주의 形態論에서 形態素의 식별을 가장 치밀하게 논의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이후 생성문법이나 인지 문법에서 形態素의 식별과 관련된 문제는 주목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形態素 식별 문제에 있어 독보적인 논의라 할 만하다. 전상범(1994: 58)참조.

14) Nida(1949: 7-61)에서는 形態素 판별의 여섯 가지 원리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번역,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출현하는 모든 경우에 공통 의미 자질과 동일한 음소적 형태를 갖는 형태는 단일 형태로 처리한다.
- 2) 의미 특성이 같지만 음소적 형태가 다를 때 그 차이를 음운론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면 하나의 형태로 처리한다.
- 3) 의미 특성이 같지만 음소적 형태가 다르고, 그 차이를 음운론적으로 정의할 수 없을 때, 만약 그 형태들이 상보적 분포를 보이면 하나의 형태로 처리한다.
- 4) 구조적 연속에서 보이는 형태상의 차이는 만약 그것의 유무가 음성적, 의미적 변별성의 최소 단위를 식별하는 유일한 자질일 때 그로 인한 차이가 형태소를 구성한다.
- 5) 음이 동일한 형태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구별된다. a) 음이 동일하고 분명히 그 뜻이 다르면 별개의 형태소이다. b) 음이 동일하고 의미상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의미 부류가 분포상의 차이와 일치하면 단일 형태소이고 의미 부류가 일치하지 않으면 별개의 형태소이다.
- 6) 어떤 형태가 단독으로 나타날 때, 여러 경우에 복합적인 상태로 나타날 때 그것과 결합한 단위가 단독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다른 것과 결합한 상태로 나타날 때, 단 하나의 복합형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것과 결합한 단위가 단독으로 나타날 수 있거나 혹은 유일한 결합형이 아닌 것일 때 구별되는 형태소이다.

(12) 形態素는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나타나면 구별된다.

- ㄱ. 단독으로 나타날 때.
- ㄴ. 여러 경우에 복합적인 상태로 나타날 때 그것과 결합한 단위가 단독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다른 것과 결합한 상태로 나타날 때.
- ㄷ. 단 하나의 복합형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것과 결합한 단위가 단독으로 나타날 수 있거나 혹은 유일한 결합형이 아닌 것일 때.

위의 원리는 실제 다음과 같은 한국어 예에 적용시켰을 때 아래와 같이 적용될 수 있다.

(13) 쥐/ 들쥐/ 생쥐/ 집쥐/ 산쥐/ 다람쥐/ 박쥐/ 시궁쥐

쥐는 단독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形態素로 구별된다. 한편 ‘들쥐’에서 ‘들’, ‘집쥐’에서 ‘집’, ‘산쥐’에서 ‘산’, ‘시궁쥐’에서 ‘시궁’은 그것과 결합한 단위들이 단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것과 결합한 상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形態素로 구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쥐’, ‘다람쥐’, ‘박쥐’에서 ‘생’, ‘다람’, ‘박’은 단 하나의 복합형에서만 나타나는데 그것과 결합한 단위인 ‘쥐’가 단독으로 나타날 수 있고, 유일 형태소도 아니므로 역시 形態素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원리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계열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요소+계열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요소’의 통합 관계만이 존재할 경우에는 두 요소 모두 形態素로 인정받을 수 없다. 즉, 특정 요소와 그것이 결합한 상대 요소 모두가 계열 관계를 가지는 경우, 양자가 形態素이고, 한 요소만 계열 관계를 가지는 경우 그것과 결합한 대상은 唯一 形態素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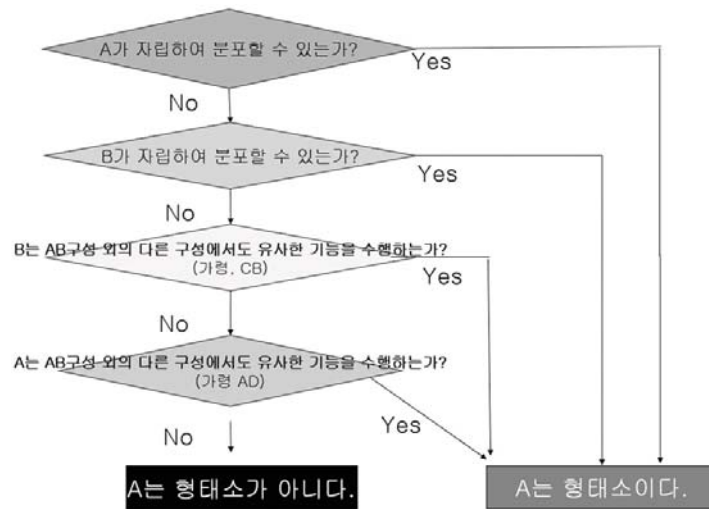
本稿는 Nida(1949)의 여섯 번째 원리를 자립성을 통해 이미 形態素의 지위가 확정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직 형태소 지위를 확정하지 못한 언어 단위들에까지 形態素의 범위를 확장/확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12ㄱ)의 단계에서는 자립적으로 쓰여 조사, 어미와 결합

한다는 것을 이미 증명된 통합 관계와 결합 관계에 의해 추출된 의미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形態素 지위를 확정한 것이다. 물론 단어의 의미 역시, 그것보다 더 큰 복수의 발화 단위로부터 構成 要素들 간의 비교/대조를 통해 추출된 후 확정될 수 있는 것이다. 본 形態素 分析의 단계에서는 단어의 의미는 적절한 과정에 의해 기추출된 것으로 가정하고 출발한다. 이후 (12ㄴ)과 (12ㄷ)에서 상정되는 形態素 식별의 과정을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복합어 ‘AB’에서 형태적으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A¹⁵⁾가 形態素인가 아닌가를 판별하기 위한 과정을 형상화하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¹⁶⁾

(14) Nida(1949)에 기반하여 상정한 형태소 판별 과정(복합어 ‘AB’의 構成 要素로서 형태적으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A에 대한 形態素 판별 과정)

15)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것은 A를 임의로 쪼갠 조각들을 위의 도식의 과정을 통과시켰을 때 모두 形態素가 아니라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

16) 사실 위의 도식은 몇 가지 세부 단계를 더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편의상 분포 확인에 중점을 둔 항목 위주로 형상화하였다. 예를 들어 A가 자립하여 분포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이 때 자립한 A의 의미 기능과 복합어 ‘AB’의 의미 기능을 비교하였을 때 유사성을 포착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될 수 있다. 또 ‘B가 ‘AB’구성 외의 다른 구성에서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가? (가령 CB)’를 묻는 것 역시, B가 ‘AB’와 ‘CB’에 사용되었을 때 유사성을 포착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될 수 있다. 이는 의미 기능을 비교하는 과정이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의미의 미리보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자립형식인 단어는 이미 통합관계와 계열 관계에 의해 추출된 의미를 확인받은 단위로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자립 단위)의 의미 기능을 확인하는 것은 미리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사성’의 확인이라는 지점이 아직 정밀하게 논의된 바 없다는 점은 추후에 남겨진 큰 과제라 할 것이다. 이는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구별 문제 등 기존 어휘 의미론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난제들과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위의 도식에 따라 판별할 경우 우리는 복합어 'AB'를 구성하는 요소 A의 形態素 여부를 분포를 1순위로, 의미를 2순위로 고려하여 판별할 수 있다. 위의 도식이 모든 경우의 形態素 식별에 적절한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의성의태어와 같이 한국어 단어 체계 내에서 특수한 성격을 보이는 예들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가 요구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위에서 형상화한 도식에서 상정한 과정을 국어 漢字語를 分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실제 漢字語 사례를 통해 국어 漢字語에 나타나는 漢字 形態素를 판별할 것이다.

3. 漢字 形態素의 식별

- (15) ㄱ. 덕담(德談), 변기(便器), 읍내(邑內), 법칙(法則)
 ㄴ. 매형(妹兄), 감옥(監獄), 배차(配車), 기복(祈福), 사금(砂金), 간판(看板)
 ㄷ. 근신(謹身), 괴멸(壞滅), 균열(龜裂)
 ㄹ. 병서(竝書), 통달(洞達), 희망(希望)
 ㄹ. 유리(琉璃), 포도(葡萄), 나팔(喇叭)

(15ㄱ)은 (14)에서 제시한 도식의 첫 번째 칸에서 복합어 'AB'의 A가 자립적이기 때문에 形態素로 식별되는 예다. '덕담'의 '덕', '변기'의 '변', '읍내'의 '읍', '법칙'의 '법'이 도식의 첫 번째 단계에서 形態素로 식별된다. (15ㄴ)은 (14)에서 제시한 도식의 두 번째 칸에서 복합어 'AB'의 B가 자립적이기 때문에 形態素로 식별되는 예다. '매형'의 '매'는 '형'이 자립 形態素(단어)이기 때문에 形態素로 식별된다. '감옥', '배차', '기복', '사금', '간판'의 선행 構成 要素들 역시 마찬가지로 후행 構成 要素가 자립적 분포한다는 점에서 식별된다. (15ㄷ)은 (14)에서 제시한 도식의 세 번째 칸에서 복합어 'AB'의 B가 계열 관계를 가짐으로써 A가 形態素로 식별된다. '근신', '괴멸', '균열'은 각각 'AB' 구성의 B요소에 해당하는 '신', '멸', '열'에 대하여 '일신, 장신', '파멸, 섬멸', '파열, 분열'과 같은 계열 관계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A 요소에 해당하는 '근', '괴', '균'을 形態素로 식별할 수 있다. (15ㄹ)은 A의 계열 관계 성립으로 形態素 식별이 가능한 예다. '병서', '통달', '희망'에서는 각각 '병행', '통찰', '희구'와 같이 A 자체의 계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병(竝)', '통(洞)', '희(希)'를 形態素로 식별할 수 있다. (15ㅁ)은 (14)의 도식 네 번째 칸에서도 부정적 결과를 얻어 'A는 形態素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예다. 이들은 形態素 分析할 수 없고, 자동적으로 A와 B가 모두 形態素가 아닌 것이 된다. (15ㅂ)에 사용된 '유(琉)'와 '리(璃)'는 한국어 단어 체계 내에서 각각 '유리'에서만 확인되며, '포(葡)', '도(萄)' 역시 '포도'에서만, '나(喇)', '팔(叭)' 역시 '나팔'에서만 확인된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칠 경우, 이익섭(1969)에서 제시한 漢字語 形態素 關係 결과와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는데, 몇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익섭(1969)에서는 漢字語를 이루는 漢字 하나하나를 形態素로 파악하기 어려운(그것이 참여한 전체 구성이 단일어로 分析되는) 예로 다음과 같은 유형을 제시하였다.

- (16) ㄱ. 단어를 구성하는 한자가 해당 단어 외에 다른 漢字語에 나타나는 일이 없는 경우

예) 모순(矛盾), 산호(珊瑚), 포도(葡萄), 분부(吩咐), 나팔(喇叭), 부용

(芙蓉), 비파(琵琶), 폐백(幣帛), 벽력(霹靂), 방광(膀胱), 개선(疥癬), 수척(瘦瘠), 남루(襠樓), 괴뢰(傀儡)

- 나. 단어를 구성하는 한자가 다른 漢字語에 사용되었을 때와 의미적 관련이 없는 경우

예) 총각(總角), 만두(饅頭), 하직(下直), 영감(令監)

- 다. 漢字語가 비중국어 단어를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우

예) 보살(菩薩), 독일(獨逸), 인도(印度), 이태리(伊太利), 아세아(亞細亞), 구라파(歐羅巴)

위의 각 항목을 本稿의 기준에 의한 分析 결과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의 (16ㄱ)은 단어를 구성하는 한자가 해당 단어 외에 다른 漢字語에 나타나는 일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들 중 일부는 唯一 形態素로 分析될 수 있는 것도 있으며, 일부는 실제로는, 2字語를 이루는 두 요소 모두 계열 관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고유어를 포함한 일반적 形態素 分析 체계에서 唯一 形態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唯一 形態素를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요소는 다른 漢字語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것과 결합한 상대 요소가 계열 관계를 확보하고 있을 경우, 해당 요소는 唯一 形態素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익섭(1969)에서 이와 관련하여 제시한 예들 중, ‘폐백(幣帛)’의 ‘폐(幣)’, ‘수척(瘦瘠)’의 ‘수(瘦)’의 경우를 本稿에서 제시한 판별 기준에 따라 재검토 해보기로 한다. ‘폐백(幣帛)’의 경우, ‘폐(幣)’는 ‘예물’이라는 의미로 ‘폐물(幣物)’, ‘폐백(幣帛)’, ‘폐빙(幣聘)¹⁷⁾’, ‘폐조(幣棗)¹⁸⁾’ 등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정한 계열 관계를 보이며, 따라서 국어 漢字 形態素로 파악할 수 있다. ‘수척(瘦瘠)’에서 ‘수(瘦)’는 여원 사람(수객(瘦客)), 여원 말(수마(瘦馬)), 마른 몸(수구(瘦軀)), 수신(瘦身)), 여위어 죽음(수사(瘦死)) 등 상당한 수의 단어에서 계열 관계를 보인다¹⁹⁾는 점에서 ‘폐백’과 ‘수척’을 단일어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17) 예물을 보내어 손님을 초대한다는 뜻

18) 폐백에 시어른들이 대추와 밤을 던져주는데 이는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와 ‘수’를 形態素로 식별해내지 않는 처리에는 문제가 있다.

둘째, (16ㄴ)의 경우에는 本稿의 관별 단계와 상통하는 것으로 해당 構成要素의 분포를 확인하는 절차와 관계되는 것이다. 다만, 이 때 단어를 구성하는 한자가 다른 漢字語에 사용되었을 때와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동음이의 形態素로 파악될 여지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기로 한다. 위에서 제시된 ‘총각’의 경우는 실제로 여기에 사용된 ‘총’과 ‘각’을 形態素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단어를 구성하는 한자가 ‘총수, 총인원’ 등, ‘총(總)’이 모두 모아 거느린다는 의미로 사용된 다수의 漢字語에 사용되었을 때와 의미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총각(總角)’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총(總)’의 의미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단어들과 계열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성(性)’은 ‘성격(性格)’, ‘성질(性質)’, ‘성미(性味)’에서 본성이나 본바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므로 ‘성기(性器)’에 사용된 것과는 다르다. 이 때 우리가 ‘성기(性器)’에 사용된 ‘성(性)’이 形態素인가를 관별하기 위해서는 ‘sex/gender’의 의미를 보이는 ‘성(性)’이 다른 단어들에서도 나타나는가/나타나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단계를 더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때 ‘성병(性病)’, ‘성비(性比)’와 같은 단어들에서 계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성(性)’은 동음이의 형태소로 분리될 수 있고, ‘성격’의 ‘성’과 ‘성비’의 ‘성’은 모두 각각 形態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16ㄷ)은 漢字語가 비중국어 단어를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우에는 形態素 分析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단어의 기원에 입각한 기준이다.

19) 이와 관련하여 심사 과정에서 일반화자들이 ‘수객’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는 앞서 “本稿의 목적은 국어 漢字語에 참여하는 漢字 形態素의 개념과 범위를 파악하는 것으로, 本稿의 관심은 개인 혹은 계층별 漢字 지식의 차이에 있지 않고, 국어에 사용되는 漢字語 구성 총체에 있다”고 하여 개인 혹은 계층별 한자 지식의 차이보다는 국어 한자어 구성 총체를 대상으로 삼음을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화자’가 ‘일반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한자 형태소와,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음을 논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체계로서의 언어 자체를 설명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탐구하고자 하는 인문학적 관점을 견지할 때 더욱 그러하다. 추후 구체적인 자료를 대상으로 한 형태소 조사 연구 등에서는 사용 빈도를 고려한 어휘 목록 등을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보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익섭(1969: 842)에서는 이 때 한자가 表意文字의 기능을 잃고 表音文字化 한다는 점, 중국어가 제 3의 외국어로부터 빌려 쓴 차용어를 우리가 다시 차용해 온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를 形態素로 分析하지 않았다. 그런데 ‘독일’, ‘보살’, ‘구라파’, ‘불란서’와 같은 단어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지위는 모두 같지 않다. 어원이나 단어 형성 목적이 같다고 그 構成 要素들의 지위 까지 같은 것으로 파악하는 처리는 적절하지 않다. 처음에 유사한 목적/상황/원리로 만들어진 단어들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 제 갈 길을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해당 단어를 구성하는 構成 要素들의 지위도 제각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존에 논의되어 온 것처럼 고유명사의 음차자라고 해서 分析이 불가능하다거나, 무조건 形態素의 자격을 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불란서(佛蘭西)’²⁰⁾에 사용되는 ‘佛’은 形態素의 자격을 가진다. ‘불어(佛語)’, ‘불문학(佛文學)’, ‘불문(佛文)’, ‘불한(佛韓)’ 등에서 形態素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獨逸)’의 ‘독(獨)’도 마찬가지이고, 신문 등 언론 매체에서는 ‘불(佛)’, ‘독(獨)’을 자립 形態素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렇다면 ‘불(佛)’이나 ‘독(獨)’은 국어 체계 내에서도 나라 이름을 의미하는 形態素의 자격을 얻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폴란드’를 뜻하는 ‘파란(波

20) ‘불’이 떨어져 나온 ‘란서’를 唯一 形態素로 인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불란서’가 ‘불’과 ‘란서’로 分析된 것이 아니라 ‘불란서’에서 ‘불’이 절단된 나머지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합성된 단위와 절단된 단위의 차이에 대한 것은 이선영(2016) 참조. 다만 ‘불란서’에서 ‘란’이 ‘폴란드’의 음차어인 ‘파란(波蘭)’, ‘네덜란드’의 음차어인 ‘화란(和蘭)’의 ‘란’과 같은 것이라는 점에서 ‘란’의 계열 관계를 인정할 경우, 分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分析은 ‘불란서’와는 달리 ‘화란’과 ‘파란’이 현대 국어에서 거의 출현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국어 화자의 직관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처럼 계열 관계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이 현대 국어의 것이 아니라 이전 시기의 것일 때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는 고유어 체계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漢字語 分析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를 화석으로 처리할 것인가 形態素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사석에서 오규환, 최윤지, 김소영, 정혜린 학형에게서 많은 조언을 얻었다. 남아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필자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반대로, 새롭게 인정될 수 있는 형태소 목록에 대한 쟁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파파라치’로부터 ‘카파라치’, ‘세파라치’, ‘학파라치’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와’ 관련된 것을 촬영하여 신고하는 사람’ 정도의 의미로 ‘파라치’를 분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蘭)’에서 ‘파(波)’가 가지는 지위, ‘마가복음(摩伽福音)’²¹⁾ ‘마(摩)’가 가지는 지위와는 차별적이다. 현대 국어에서 ‘폴란드’와 관련되는 의미의 ‘파(波)’나, 마가복음과 관련되는 의미의 ‘마(摩)’라는 어형은 분포, 구조적으로 형태소로 식별될 수 없지만, 프랑스와 관계된 의미의 ‘불(佛)’과 독일과 관계된 의미의 ‘독(獨)’은 국어 단어 체계에서 분포, 구조적으로 식별 가능한 形態素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익섭(1969)의 기준은 漢字語의 分析과 관련된 언어 사용자의 직관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매우 설득력이 높지만 분포, 의미, 어원과 관련된 다양한 기준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形態素 分析의 일관적 기준이라기보다는, 形態素 分析 결과가 보일 수 있는 특징적 몇 국면을 현상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더 타당한 해석이 된다.

本稿는 形態素 개념을 본격 정립하고 구조적 식별을 도모한 구조주의자 Nida(1949)의 방법을 일정 부분 받아들였다. 그런데 形態素는 언어 分析과 기술의 편의를 위해 만든 인공적 개념이다.²²⁾ 따라서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즉 정해 놓은 形態素 개념과 分析 방법의 사용이 언어 기술 및 교육 등 활용의 영역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分析 기준과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漢字 形態素 分析이 漢字語 연구와 교육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漢字 形態素 分析의 의의, 특히 2字語 構成 要素인 원사류에 대한 形態素 分析의 의의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IV. 2字語 構成 要素(원사류)에 대한 形態素 分析의 의의

국어 漢字語의 構成 要素에 대하여, 그 동안 形態素 分析에 이견이 없었

21) ‘마가복음’의 ‘마가’는 ‘Mark’의 음차, ‘누가복음’의 ‘누가’는 ‘Luke’의 음차와 관계된 것이다.

22) 이는, 分析 단위로서 形態素가 심리적 실재성을 가질 수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本稿 II장의 가정에 의하면 形態素가 반드시 심리적 실재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언어 체계에 대한 효과적 기술을 위한 分析의 단위로서 가치를 가진다.

던 차사류(3字語 構成 要素) 뿐 아니라 원사류(2字語 構成 要素)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形態素 分析을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17) ㄱ. 전문 어휘 체계의 형성 원리와 생산성에 대한 이해와 설명에 유리하다.
 - ㄴ. 漢字語 構成 要素가 보이는 다양한 양상을 포착하고 설명하는 데 유리하다.
 - ㄷ. 교육적 측면에서, 國語 漢字語에 참여하는 漢字 形態素는 고유어 形態素와 마찬가지로 그 의미, 분포, 기능이 기술 및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漢字 形態素 식별 및 分析의 성과는 國語 漢字 形態素 사전 제작이나 교육용 漢字 形態素 목록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장점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2字語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세워 分析하는 것은 漢字 形態素가 보이는 생산성을 포착하여 특히 전문 지식 분야 어휘들의 형성 원리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한국어 화자는 2字語에만 참여하는 요소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필요성(새로운 대상에 대한 명명 욕구 등)이 갖춰지면 그것을 3字語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字語를 分析하여 얻어지는 원사류와 3字語에 참여하는 차사류를 形態素 分析 층위에서 완전히 별개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주지연(2016)의 漢字語 전문용어와 관련된 分析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주지연(2016)에서는 일반 어휘에서는 3字語의 맨 앞이나 맨 뒷부분을 담당하는 차사용법을 가지지 않고 2字語 전용요소로만 사용되지만, 전문용어에서는 차사의 용법도 가지는 한자들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였다(주지연 2016: 387).

- (18) ㄱ. 흡수-능, 견-관절, 두개-저, 인-유두종바이러스, 무한-소.
 - ㄴ. 내-급흡-성/내-용매-성, 가-인산분해/가-알코올반응/가-수소정제, 살-정자-제/살-미생물-제, 경-복막 투여.
 - ㄷ. 가-전자, 비-방사능/비-부피

주지연(2016)에서는 위의 예들과 관련하여 (18ㄱ)은 일반 어휘에서는 해당 위치에서 원사 용법만 가지는 漢字 形態素가 전문용어에서는 원사로서의 의미를 유지한 채로 차사의 분포로 확장된 용법을 보이는 예, (18ㄴ)은 일반 어휘에서 본래 원사 용법을 가진 漢字 形態素가 결합한 단어가 일종의 틀을 형성하면서 차사 용법을 획득한 예, (18ㄷ)은 일반적으로 후행 차사 위치에 사용되는 漢字 形態素가 선행 차사로 사용된 예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특히 전문 어휘 체계에서 위와 같은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유로는 전문용어의 경우 특수한 개념이나 사물의 명명에 대한 강력하고 시급한 요구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원사류의 漢字 形態素들은 언제든 차사류와 같은 용법을 획득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고영근(2015)에서 漢字語의 構成要素를 구성소와 형성소로 구별하고, 주로 2字語에 참여하는 요소들을 ‘구성소’로 처리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즉, 2字語의 構成要素들은 전형적인 구성소로 다루어져 온 지붕의 ‘웅’이나 ‘너무’의 ‘우’같은 요소들과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고영근(1993)에서 제안한 구성소, 형성소 개념은 이론적으로 유용한 면이 있지만, 이것을 고영근(2015)에서 제안한 것처럼 漢字語分析에 받아들일 경우, 많은 수의 漢字語 構成要素가 구성소이면서 형성소인 것이 되며²³⁾ 고유어 구성소가 보이는 특성과 漢字語 구성소가 보이는 특성이 지나치게 이질적이라는 문제가 설명될 필요가 있다.

둘째, 漢字語의 構成要素에 대하여 3字語를 형성하는 요소만 分析하고 2字語는 分析하지 않거나, 혹은 모두 分析하거나, 漢字語의 기원에 따라 나누거나 하는 방식들은 우리가 앞 장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漢字語에 대한 인식의 국면 등에 대한 현상적 기술은 될 수 있어도 국어 漢字語 構成要素의 체계를 파악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漢字語에 참여하는 構成要素들 간의 통합 관계와 계열 관계를 고려한 분포 중심의 구조적 접근은 언어 구조 分析을 위한 ‘形態素’라는 단위 본연의 장점을 살려 漢字語 分析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그 동안 分析의 대상에서 제외 되어온 경향이 있는 원사류(2字語 참여

23) 구성소이면서 형성소일 수 있는 요소들로 인한 문법 기술의 문제는 최형용(2002) 참조.

요소)들이 사실 동질적인 성격의 일관된 대상이 아니라 다양한 성격을 보이는 대상임을 확인하고 의의를 가진다. 2字語의 構成 要素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성격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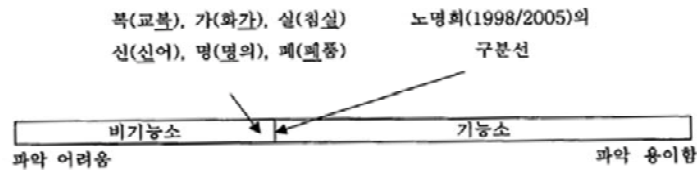
- (19) ㄱ. 배추(<백채(白菜)), 상투(<상두(上頭)), 감자(<감저(甘藷))
 ㄴ. 포도(葡萄), 유리(琉璃), 나팔(喇叭)
 ㄷ. 파다(頗多), 편파(偏頗)
 ㄹ. 결백(潔白), 거래(去來)
 ㅁ. 잡음(雜音), 잡설(雜說)
 ㅂ. 덕담(德談), 압박(壓迫)

(19ㄱ)은 더 이상 漢字 形態素로 分析할 수 없고 漢字語로 보기도 애매하지만 기원적으로는 漢字語에 속한다. (19ㄴ)은 漢字語이지만 漢字 形態素로 分析하기 어렵다. (19ㄷ~19ㅂ)의 밑줄 친 요소는 漢字 形態素로 分析될 수 있는데 그 성격은 각각 다르다. (19ㄷ)의 ‘파(頗)’는 ‘소문이 파다하다’와 같이 사용되는 ‘파다’에 나타날 때²⁴⁾와 ‘편파’²⁵⁾에 나타날 때 그 의미 기능이 다른 동음이의 形態素라고 할 수 있는데, 흥미롭게도 표준국어대사전 수록 단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파(頗)’가 참여한 단어가 저 둘 뿐이다. 이에 의하면 ‘파(頗)’는 2개의 동음이의 형태소로 나뉘지는데, 그 각각이 유일 형태소인 것이다. (19ㄹ)의 밑줄 친 形態素는 2字語에만 나타나지만 (19ㅁ)의 경우에는 3字語에 차사, 혹은 기능소로서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19ㅂ)은 자립 형태소로 分析될 수 있다. 漢字語의 構成 要素를 漢字 形態素 개념과 연관시키지 않고 원사류와 차사류, 혹은 비기능소와 기능소로만 구별할 경우에는 (19ㄷ)과 같은 요소들에 대한 처리가 애매할 수 있다. 안소진(2011: 114)에는 이와 관련된 처리를 다음과 같이 형상화하였다.

24) ‘자못, 꽤’의 의미로 사용된다.

25) ‘치우치다’와 관련된 의미로 보인다.

(20) 안소진(2011: 114)의 그림



이와 관련하여, 漢字語의 構成 要素를 形態素와 形態素가 아닌 것으로 먼저 나누고, 추후 形態素를 (19ㄷ~19ㄴ)의 분류 등과 같이 세부 분류한다면, 2字語 構成 要素와 3字語 構成 要素만을 形態素 개념과 연관 짓지 않은 채로 구별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漢字 形態素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漢字語 構成 要素에 대한 연구의 기초 작업으로 이루어질 때 漢字語의 속성과 관계된 2字語 3字語論 등의 선행 논의와 더불어 더 치밀한 체계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 교육적 측면에서 漢字 形態素 分析이 유리하다. 국어 漢字語에 참여하는 漢字 形態素는 고유어 形態素와 마찬가지로 그 의미, 분포, 기능이 기술 및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다.²⁶⁾

V. 결론과 남은 문제

本稿는 漢字 形態素 개념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식별함으로써 漢字語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첫 단계로 구조주의적 形態素 판별 기

26) 본 연구자는 국어 어휘 교육의 측면에서는 ‘한자’ 교육이 아니라 ‘한자에 기반한 국어 형태소’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때 ‘한자’ 교육은 ‘한자에 기반한 국어 형태소’ 교육의 일환으로서 漢字 중에 쉬운 한자가 있고 어려운 한자가 있다는 식의 모호한 구별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국어 단어에 참여하는 漢字 形態素가 기반한 한자인가, 그렇지 않은 한자인가, 어떤 수준의 단어에 참여한 形態素인가의 구별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자 지식이라는 어원 지식이 한자어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자료로 입증된 바 없다. 익명의 심사위원은 국어 교육-한자 교육의 문제와 관련된 많은 논란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이에 공감한다. 한자 형태소 교육이 국어 교육의 측면에서 한자 교육과 가지는 차별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준에 입각하여 2字語의 形態素 分析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우리가 지금까지 分析한 바에 의하면 기존의 漢字語 分析에서 분류되어 온 차사류(3字語 構成 要素)와 원사류(2字語 構成 要素) 중, 기존에 접사와 유사하게 다루어지면서 자동적으로 形態素 자격을 부여받은 차사류 뿐 아니라 2字語의 構成 要素인 원사류의 상당 부분 역시 形態素로 인정할 수 있었다. 즉, 원사류의 속성들은 동질적이지 않으며, 국어 2字語 형성에 참여하는 많은 수의 원사류는 形態素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어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漢字語는 形態素 단위로 分析할 수 있고, 각 形態素는 고유어 形態素와 마찬가지로 그 의미, 분포, 기능이 기술 및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漢字 教育’과는 구별되는 것이며 ‘國語 教育’의 일환으로 國語 漢字語를 이루는 漢字 形態素에 대한 교육에 해당하는 것이다. 本稿의 목적은 한국어 漢字語 分析을 위한 논의의 도구이자 기반으로 形態素 개념을 가다듬고 漢字語 形態素의 범위에 대한 일부 고정 관념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2장에서 漢字語 形態素 分析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두 가지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인 바 있다.

- (21) ㄱ. 漢字語 중 특히 2字語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形態素 자격 인정 문제
 ㄴ. 하나의 한자가 극심한 의미와 분포의 다양성을 보이는 문제

本稿에서는 그 중 (21 ㄱ)의 첫 번째 문제에 천착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추후 위에서 제시한 나머지 문제 (21 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뿐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사용역에서 넓은 스펙트럼을 보이며 포착되는 漢字語 構成 要素들의 지위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漢字語 分析과 형성의 단위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 질 때, 궁극적으로 한국어 어휘의 절대적 多數를 점하고 있는 漢字語 形態論 논의가 성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參考文獻>

- 고영근(1993),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일지사.
- _____(2015), 「한자어 형성에 있어서의 구성소와 형성소」, <한글> (308), pp.5~30.
- 김석득(1965), 「국어형태론-형태구조(이름씨류어)의 연구」, <한국어문학> 제1집.
- 김용한(1998), 『한자어소의 의미 기능 연구』, 국학자료원.
- 김창섭(2001), 「한자어 형성과 고유어 문법의 제약」, <국어학> 37, 국어학회, pp.177~195.
- _____(2013), 「‘-的’의 두음 경음화와 2字語 3字語론」, <국어학> 68, 국어학회, pp.167~188.
- 노명희(2014), 「한자어 형성과 기능 단위」, <한국어의미학> 43, 한국어의미학회, pp.159~185.
- 박영섭(1987), 「국어 한자어의 기원적 계보 연구-현용 한자어를 중심으로」, 성균관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안소진(2011), 「심리어휘부에 기반한 한자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유현경(2013), 「표준 국어 문법 개발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이상복(2012), 「국어의 형태소 분석에 대한 일고찰(1): 고유명사를 중심으로」, <배달말> 50, pp.1~35.
- 이선영(2016), 「혼성어의 지위에 대한 일고찰」, <어문연구> 171, pp.47~66.
-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 이선웅·오규환(2016), 「형태소의 식별과 분류」, 2016년 겨울 국어학회 발표문.
- 이익섭(1968), 「한자어 조어법의 유형」, 『이승녕박사 송수기념논총』, 을유문화사, pp.475~483.
- _____(1969), 「한자어의 비밀음절 단일어에 대하여」, 『김재원박사 회갑기념논총』, 을유문화사, pp.837~844.
- 전상범(1994), <형태론>, 한신문화사.
- 주지연(2015), 「한국어 한자형태소의 분포 조사」, <국어학> 76, 국어학회, pp.39~66.
- _____(2016), 「전문용어에 사용된 한자 형태소의 분포와 전문 분야별 한자 교육」, <어문연구> 44(1), pp.373~401.
- 채현식(2012), 「계열관계에 기반한 단어 分析과 단어 형성」, <형태론> 14, pp.208~232.

- 최형용(2002), 「형태소와 어소 재론」, 『문법과 텍스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2015), 『한국어 형태론』, 역락.
- _____(2016), 「형태론, 쟁점들에서 길 찾기」, <어문연구> 169, pp.37~88.
- Nida, E. A. (1949), *Morphology: The descriptive analysis of word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ABSTRACT

To establish the Sino-Korean Morpheme Concept (1)

- Focusing on the morphological status of 2syllable-word component -

Ju, Ji-yo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scope of Sino-Korean morpheme. The scope of Sino-Korean morpheme analysis has long been controversial. In this paper, we first examined the concept of Korean morpheme, and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recognizing the Sino-Korean morpheme participating in the 2syllable-word component as morpheme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ctive morphological analysis of the components of Sino-Korean words, including the 2syllable-word component as well as the 3syllable-word component. It is not only advantageous to understand and explain the formation principle and productivity of Sino-korean technical lexical system, but also helps to capture and explain various aspects of Sino-korean words. In terms of education, the meaning, distribution and function of Sino-korean morpheme can be the subject of education as well as those of the Korean morpheme, and the results of the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Sino-korean morpheme can be used as contents of dictionaries and educational materials.

※ key-words: Sino-Korean words, Sino-Korean morpheme, morphological analysis,
Hanja education